다양하게 나와 있는 우리말 특수사전들

상소리, 속담, 유래 사전 등 10여종에 이르러

현재 출간되어 있는 우리말 사전들을 살펴보면, 해설식 사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구성과 형태의 특수 사전들이 10여종 정도 눈에 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있는 여러 특수 사전들의 특징과 성격을 알아본다.

■ 국어학 사전(한글 학회 엮음, 한글 학회, 1995년)

국어학의 갈말(학술용어) 중에서 일본, 서양 등에서 들여온 학술용어를 순수한 우리말 학술어로 고쳐 실었다. '글자, 음성·음운, 말본·문장, 어휘·의미, 방언·언어지리학, 국어사·비교언어학, 일반 언어학, 붙임 : 책 이름, 사람 이름'의 여덟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권재일 등 전공분야 교수들이 분담 집필하여 외래산 학술용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학술용어와 해설을 수록했다.

■ 고치고 더한 쉬운말 사전(한글 학회 엮음, 한글 학회, 1984년)

일반어와 각종 전문분야의 용어 중에서 어렵고 낡은 한자말, 일본말 찌꺼기, 서양 외국말, 그밖에 틀리게 쓰이는 말들을 쉬운 배달말(토박이말)로 바꾸어 놓은 사전이다. 총 32,000여 낱말을 수록하고 있는 증보판. 원래는 《쉬운말 사전》(한글 학회 엮음)이라는 이름으로 67년에 편찬되었던 것을, 문교부가 83년에 내놓은 《국어순화자료》의 새 올림말과 그간 한글 학회에서 구한 새로운 자료들을 보탰다.

■ 한국 땅이름 큰사전(한글 학회 엮음, 한글 학회, 1991년)

한글 학회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책이다. 모두 20권에 달하는 《한국 지명 총람》(한글 학회 엮음)을 찾아보기 쉽게 다시 정리한 것인데, 이 《한국 지명 총람》은 우리나라 구석구석의 땅 이름을 모두 찾아 지역별로 엮은 책으로 땅 이름들을 도별로 나누어 싣고 있다. 1966년 서울편을 시작으로 하여 86년 8월 경기편 하권을 끝으로 완간되었는데 이를 가나다 순서로 다시 정리하여 펴낸 것이 《한국 땅이름 큰사전》이다. 전국의 같은 땅이름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엮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땅 이름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우리말 상소리사전(정태륭 엮음, 프리미엄북스, 1994년)

전래속담을 비롯해서 은어, 속어, 욕설 등 천한 소리 6천여 가지를 담고 있다. 이들 어휘들은 국어사전에는 물론이고 민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들로서 주로 식본능과 성본능에 연관된 것들이 많다. 상소리가 멸시받아온 것은 유교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이들 '식본능과 성본능'을 천시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짐승항렬(짐승같이 나쁜 사람)' 등처럼 우리민족이 공유해왔으면서도 어휘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음지에서 굴러다니던 우리말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있다.

■ 민족생활어 사전(이훈종 엮음, 한길사, 1992년)

민족생활대백과를 겸하고 있는 사전이다. 의식주부터 농사, 공예, 여행, 무기, 종교와 의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생활 각 부분에 걸쳐 우리말을 발굴·조사하고 그 낱말의 뜻과 쓰임새 그리고 그 말이 생긴 유래 등을 담고 있다.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모든 낱말에 함께 실음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문화적으로 전통과 단절된 상태인 현 세대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만물유래사전(박영수 엮음, 프레스빌, 1995년)

흔히 쓰는 우리말 및 외래어 어휘의 어원과 그와 관련된 사물 및 사건의 유래를 사전식으로 정리했다. 500여 항목에 달하는 주제어와 그 주제어에서 파생되는 1,500여 가지의 어휘, 사물,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되는 언어와 사물을 연계적으로 설명하고 어원과 함께 동서양 풍속의 유래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백과사전적 정보를 집적한 책으로 문화사적 에피소드도 싣고 있으며 주제어와 관련된 명언과 고사성어의 탄생배경도 아울러 수록했다.

■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사전(임홍빈 엮음, 아카데미하우스, 1994년)

기존 사전들의 낱말 풀이식 해설방식에서 벗어나서 말의 느낌이나 어감까지 밝힌 사전이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어 969개를 싣고 그 차이를 예문과 함께 명확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1천여개의 표현용법까지 싣고 있다.

■ 문학상징사전(이승훈 엮음, 고려원, 1995년)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어휘들의 상징적 의미를 폭넓게 정리하고 다양한 인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어휘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명료하게 해석하고, 동·서양과 고전·현대를 망라한 문학작품이 인용되고 있으며, 해석이 분분한 고전작품 속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어휘를 찾아내 상징 해석을 통해 접근을 시도했다. 400여개 어휘들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인용된 작품들이 700여편에 달하며 그 풍부한 작품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성향의 작품들이 제시되어 있다. 용어, 인명, 작품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찾아보기가 수록되어 있다.

■ 한국 속담 활용사전(김도환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3년)

단순 해설식으로 속담을 정리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전들과 변별되는 책. 총 6,227개의 속담을 성품과 언행, 자기보전, 가정규범, 표정과 음성, 감각, 능력의 유무, 자연현상, 식음, 처세의 원리, 지식 등의 48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정리, 수록하고 있다. 항목별 분류 이외에도 가나다순의 찾아보기를 실어 편의를 도왔다.

■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엮음, 태학사, 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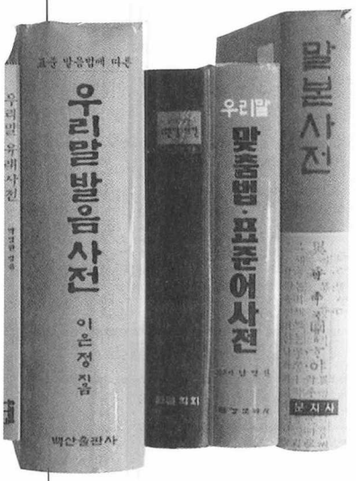
속담을 알고 있어도 실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한 사전. 언어 구사에 능수능란한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속담 사용 용례들을 찾아 그 적절한 사용 형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속담 구사의 실증적인 면'을 수록하고 있다. 문장으로 쓰이는 예를 제시하고 그 다양한 변형태를 8천5백여 항목에 걸쳐 담았다.

■ 우리말 갈래 사전(박용수 엮음, 한길사, 1989년)

순수한 우리말을 그 뜻갈래와 쓰임새에 따라 엮어놓은 사전으로 '대중말 사전'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중류사회가 쓰는 서울말'을 표준말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말이 온통 한자말 투성이 되고 말았으며 순수한 우리말은 차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쓰임새와 유의어에 따라 33항목으로 나눈 대분류와 다시 품사별, 용어별, 유의어별로 찾기 쉽게 나눈 소분류로 구성했다.

■ 우리말 분류 대사전(남영신 엮음, 성안당, 1994년)

방대한 분량의 우리말 어휘를 쓰임새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 원래는 전3권이던 것을 이번에 1권으로 묶은 것인데 어휘 1만여개를 보완하는 등 내실을 기했다. 또, 모든 올림말을 하나의 분류 체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분류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다. 북한



에서 쓰이는 중요한 낱말도 실었으며 부록으로 역순사전을 붙여서 낱말의 끝부분만 알면 그 낱말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같은 계열의 낱말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 말본 사전(박종국 엮음, 문지사, 1980년)

국어문법을 연구하고 익히는 데 있어 길잡이가 될 문법 사전으로 절충식 학설체계를 따라 펴냄으로써 여러 학설을 견주어 볼 수 있도록 했다. 문법 용어를 가능한 순 우리말 용어로 사용하려 노력했으며, 올림말인 표제어는 《훈민정음》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최현배, 주시경, 유길준, 이희승 등의 문법책에서 뽑아 설정했다.

■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이현복 외 엮음, 어문각, 1993)

전문 학자들과 방송 아나운서들이 합작 편찬한 전문발음사전으로 65,973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우리말에 실제 쓰이는 음절의 종류가 1,453개임을 밝혔으며, 한글 자모와 국제 음성기호 두가지를 이용하여 발음 표기를 했다.

■ 우리말 발음 사전(이은정 엮음, 백산출판사, 1992)

일상용어뿐만 아니라 전문용어까지 약 15만개 어휘의 발음을 정리했다. 지난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가 제정 고시한 '표준 발음법'을 토대로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제어 기준 설정문제, 사이시옷 표기와 그 발음 문제, 표준어의 '수-/숫-' 문제, 'ㅚ'의 2중모음 발음 문제, 2음절 이하의 긴소리 발음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말 전산 용어 사전(국어정보학회 엮음, 정음문화사, 1995)

전산기(컴퓨터)문화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산기 용어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소산으로서 문화체육부에서 제정 공표한 전산기 관계 순화용어들을 올렸다. 셈틀, 갈무리, 무른모, 가로채기, 시렁 등의 친숙하면서도 정확한 용어들을 싣고 있으며, 문서처리기의 용어나 윈도우 용어 등도 아울러 올리고 그림과 사진 등을 곁들여 풀이하고 있다.

■ 한국문화 상징 사전(이어령 외 엮음, 동아출판사, 1992년)

70여명의 필진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사고와 언어의 결정체인 유물과 고전 속에 담겨 있는 상징성을 밝히고 전설과 신앙체계에 대한 의미론적 위상을 규명하고 있다. 크게 9부분으로 나누어 그와 관련한 상징들을 수록했는데, '어원'편에서, 국어학, 알타이 제어와의 비교, 문헌학 등 언어학적 고찰이 이루어지며, '신화'편에서는 창조신화, 구전 신화 등을, '무속·민속편에서는 우리 민족 의식 저변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등을 다룬다. 이 외에도 '동양문화',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민족 고유의 상징을 조사, 분석한다.

■ 상말 속담 사전(송재선 엮음, 동문선, 1993년)

'상말'은 그 자체로 속담(상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상말 속담은 일반 속담에 비해 다듬어지지 못하고 여과되지 못한 까닭에 거칠고 직설적이다. 또한, 개방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까닭에 절친한 사이에서나 쓸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저자는 은어, 비어, 욕말, 육담 등이 쓰인 2300여개의 상말 속담을 가나다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부록으로, 상말 속담을 소재별로 나눈 찾아보기를 첨부했다.

— 한동림 기자

SCIENCE MASTERS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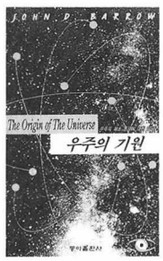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95 신간 안내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즈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즈 지음

11월 발간 예정!!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극소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튜어트 지음

11월 발간 예정!!

■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 1995년 7월 발간
❶「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❷「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즈
❸「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❹「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 1995년 근간 예정
❺「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즈
❻「수학의 본성」: 이언 스튜어트

▶ 1996년 이후 발간 예정
❼「지능의 출현」: 윌리엄 캘빈
❽「세포의 진화」: 린 머굴리스
❾「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❿「뇌 속의 세계」: 콜린 블랙모어
⓫「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⓬「시간의 시작」: 조지 스무트
⓭「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⓮「입자화학」: 머레이 겔만
⓯「인지과학」: 다니엘 데넷
⓰「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⓱「사회 변화와 적응」: 메리 베이트슨
⓲「생활사의 유형과 방향」: 스티븐 굴드
⓳「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⓴「적응」: 조지 윌리엄즈
㉑「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㉒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02)866-8800(교환 317)
영업(02)861-4818/(02)853-5608